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소기업에 수수료 감면 디폴트옵션 IRP 운용수익 낮을 경우 수수료 할인

다음달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약 3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고용노동부 및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4월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의 노후 대비 수단인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데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지고 수수료 총액은 증가한다.

수수료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기업)이지만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가입자(근로자)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원은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개편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중소기업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상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그동안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이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인 43개 금융회사에서 제공된다. 단 수수료 할인율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게는 4월1일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원은 이를 통해 약 21만5000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된다. 적립금 유지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회사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주체와 적립금 운용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목표수익보다 낮을 경우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하되 목표수익을 초과해도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부과 체계도 도입된다. 기존에 적립금 규모만 고려했던 수수료 체계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업무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 5% 할인 ▲각 금융기관의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실제배당형상품 또는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운용관리 수수료 10% 할인 ▲연금수령 단계는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감소하므로 연금수령시 운용관리 수수료 5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면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원은 예상했다.

금융원과 고용부는 개편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환 금융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이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봄 햇살 머금은 장독대

봄기운이 완연한 27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일농원 장독대에서 직원들이 향이리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후진 승용차, 나주호 추락...1명 탈출·2명 구조

27일 오후 1시18분께 전남 나주시 다도면 한 식당 인근에서 승용차 1대가 나주호로 추락했다.

승용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나머지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탄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광주 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내놓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개별 조사 보고서들에 대해 광주 지역 사회가 폐기를 촉구했다.

오월정신지킴이범시민대책위(대책위)는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5월 정신을 능멸한 조사위 개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5일 대책위 등 시민 단체들이 공동 주관해 연 조사위 보고서 평가회를 통해 조사위 조사 결과가 5·18을 왜곡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며 "보고서 내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사위는 오는 31일까지 개별 보고서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 종합 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위는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와 조건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조사위의 종합 보고서는 개별 보고서의 축약본에 불과하다. 종합 보고서에 일부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들 왜곡으로 가득 찬 개별 보고서의 조사·진실 자료는 폐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 당국과 기초의회, 국회 임성을 앞둔 지역 정치인들은 조사위의 보고서 폐기 투쟁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책위와 광주시의회 등은 지난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위의 개별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공청회와 청문회의 부재를 지적, 해당 개별 보고서들에 대해 조사 설계와 계획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980년 5월 21일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모 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자명해진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로 왜곡의 빌미가 된다며 관련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의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계엄군 집단 발포에 맞서 광주 시위대가 전남 무기고를 피탈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비·양사론 시선에 입각, 왜곡의 우려가 다분한 의견까지 보고서에 담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위는 광주 시민 사회 등의 이같은 입장을 수렴, 개별 조사 보고서·대정부 권고안과 함께 묶어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종합 보고서를 작성·발표한다.

서선욱 기자



나주경찰, 2024년 치안종합성과 성과관리 전략보고회 개최

나주경찰은 26일 나주경찰서장(총경 장진영)과 각 과 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치안종합성과 향상방안에 대한 전략보고회(1차)를 개최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경찰, 신학기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점검 실시

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지난 26일 화순군청, 화순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군 관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소방, 소방서장 건설현장 현장지도방문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봄철 대형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6일 담양센트럴파크(남양휴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담회 및 화재안전관리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양소방, 현해스님 소방시설 기증 및 전통사찰 방문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욱)는 26일 대한제난구호안전봉사회 이사장 현해(賢海)스님으로부터 소방시설(K급·투척용소화기) 2종 20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곡성소방, 화목보일러 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운영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역 주택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곡성군 관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가구에 119생활안전순찰대를 통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광주동부소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위두세요'

광주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25일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